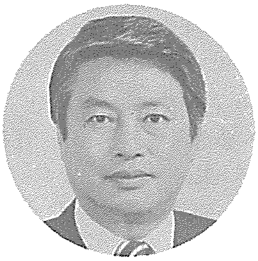
DENTAL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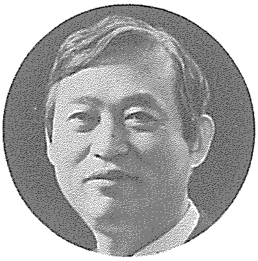
전국 市·道 支部長 會議에서

매월 2일을 "無車日"로 제정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날로 폭증하는 교통량과 조악한 도로율, 그로인해 파생된 심각한 환경공해등을 고려하여 매월 2일을 "無車日"로 선포하고 전국회원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대구파크호텔에서 거행된 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에서 발의 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승용차안타기 운동은 타율적이거나 관주도의 강제적 캠페인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결의된 운동이라는 데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커다란 호응과 함께 매스콤을 주목을 받고 있다.



윤 흥 렬 치협회장



(가칭)치과의사 승용차 안타기 운동본부 위원장 김 현 풍

▲"無車日"스티커

齒協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선진국대열에 다가선 우리나라가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와 협소하고 불비한 도로망의 악조건하에서 실로 심각한 환경공해와 무질서의 교통문화가 파생됐다」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문제는 실로 전국민의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정서적 손상과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無車日을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齒協은 이어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무책임하게 소리치는 혼돈된 현실에서 모든 국민들이 입안의 28개 치아처럼 서로 이웃하며 조화를 이루어 기능하듯 함께하는 지혜를 인식하길 호소한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교통문제가 정착될때 까지 無車日을 계속해 나갈것을 선언했다.

한편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사설과 사회면을 통해 보도하고 치과의사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시작된 운동이 범사회적인 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